

외국스님 잦은 방한... 좋다고만 할 것인가

가까이 하기엔 한국 큰스님 너무 먼곳에

외국 스님들의 한국행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미얀마 고승 우 쾀디다 스님이 보리수선원의 초청으로 방한했고, 10월에는 달라이라마의 왕사(王師) 링 린포체 스님이 방한해 해인사에서 법문했다. 또 올 3월에는 '화'로 유명한 틱낫한 스님이 명진 출판사 초청으로 방한할 예정이고, 오래 전부터 방한을 두고 세인이 관심을 모았던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 스님들의 방한이 잦아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외국 스님들의 방한은 하나의 이벤트적인 성격이 짙다"고 말한다. 현재 불교관련 서적이 대형 서점에서 판매부수 1, 2위를 점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틱낫한 스님의 경우에 한정한다면 출판 홍보 차원에서 방한이 이루어진 측면이 짙다.

이와는 달리 현재 한국불교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국 스님들이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적 공황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한국불교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이 외국 스님들의 방한이다.

우선 한국불교의 '퇴행적 세계화'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선양하는 노력들은 갈수록 개별화되고, 일방적 또는 수동적 받아들이기만 활발해진다. 한국불교의 외연 확장엔 커녕 내연의 왜소화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해 직설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큰스님'들은 다 어디에 계시까?

해외 고승 초청 어떻게 볼 것인가

3월호 예정된 틱낫한 스님의 방한이 알려지자 다양한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1개 면 이상을 할애해 스님의 이야기나 스님이 있는 '플럼 빌리지(Plumvillage)'를 조명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스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기업체나 광고계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스님의 방한에 대해 불교계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한국불교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열 법사는 "위빠사나 중심의 남방불교가 무



오는 3월에 방한 예정, 틱낫한 스님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불교평화대표단 의장으로 파리 평화회의를 이끌면서 보여줬던 반전 의지 때문에 귀국이 금지됐다.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인 스님은 현재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에서 '플럼 빌리지'라는 명상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플럼 빌리지는 '자두마을'이란 뜻으로 '휴과 사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곳'을 표방하며,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수행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건 옮겨서 불자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을 움직이는 감성적 문제로 초보적 명상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의 현실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엔 틱낫한 스님 같은 분 없는가

외국 스님들의 방한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내 손의 떡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가 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랍도 별로 안 된 '눈 푸르고 잘생긴 스님'이 일반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봐야 한다"며 "최근 외국 스님들의 방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주제성을 망각한 채 서양에서 역수입한 불교를 우위에 서게 하는 풍토도 이 기회에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틱낫한 스님의 두 번째 방한 소식이 알려지자 스님과 한국불교에 대한 자기성찰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한국에는 소위 말하는 '법력 높은 고승'이 없는가란 질문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제열 법사는 "스님이 수행의 깊이가 심오하거나 깨달음의 경지가 뛰어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법정스님처럼 저술활동이 뛰어난 스님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승보다 틱낫한 스님 같은 분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국 스님들이 불자나 일반 국민과 거리가 멀고, 한문 투성이의 법문 등이 현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네 큰스님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일반 대중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찾아가더라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거리가 먼 큰스님'들은 사월 초파일 등 행사 때만 알아듣기 어려

한문투 법문 대중이해 힘들어 이대로 가면 서구 불교 역수입 더욱 늘듯 “출판 상업주의에 장단” 지적도

운 법문을 내린다. 한글로 적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을 중국 언어로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뜰 앞의 잣나무'를 얘기한다.

한국불교 수행풍토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 스님들의 방한 문제는 간화선 우위의 수행 풍토와도 직결된다. 즉 간화선만을 최상의 수행으로 여기는 풍토가 '간화선'의 고유한 가치마저 퇴색시키면서 온갖 수행 방법의 난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는 너무 고급스러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고 지적한다. 또한 "기초훈련조차 안 된 사람에게 무거운 화두를 던져놓는 건 아기에 게 거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순서와 체계에 맞는 수행방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깨달음의 경지만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오늘의 '간화선'이라는 말이다.

봉화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은 "부처님 당시 위빠사나와 사마타(samata,止) 두 가지 수행방법이 있었는데, 육조스님의 제자 영가스님이 이 두 가지를 한역하면서 '성성적적(惺惺寂寂, 맑고하고 산란한 생각이 나지 않음)'과 '적적정정(寂寂惺惺)'으로 표기했다"며 "위빠사나나 사마타를 수행해도 결국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두를 드는 것이나 염불하는 것,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방편들"라며 간화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기에 맞는 수행방편을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상업주의에 대한 우려

틱낫한 스님의 방한은 명진출판사의 출판물 홍보 차원에서 기획이다. 이런 기획 때문에 행사가 출판상업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명진출판사 한상만 상무는 "3억 이상 예상되는 경비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한을 추진하는 것은 스님의 평화사상을 핵문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한반도에 널리 펼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답했다.

그러나 틱낫한 스님 방한과 관련해 여러 기업체들에게 협찬을 받고 방한 중 랜 싸인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볼 때 상업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객관적 입장의 불교관계자들은 "출판사도 기업이니 만큼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 행사가 자본의 속성에 휘둘리지 않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황영숙 재가복지팀장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

복지사의 겨울 하루

어르신 기척없으면 '철렁'...혹시? “기름값 무서워서” 언손에 도시락

"박인수(가명·88) 어르신, 복지관에서 도시락 가져 왔어요!" 열거설기 엮은 판자문을 두들긴다. 어르신의 기척이 없으면 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밤새 안녕이라는데, 혹시...

"으~ 응, 가만 있어봐, 이 놈의 몸뚱이가 말을 잘 들지 않아서" 뒤척이는 소리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문을 들어선다.

"어르신, 도시락 가져 왔어요. 괜찮으시죠?" 이부자리가 한 평 남짓 방 전체를 덮고 있지만 방안은 냉기가 감돈다.

"올 겨울 들어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래요."

"그러게 말이야, 기름값 무서워 맘껏 틀어보지도 못했는데, 보일러가 터졌대, 추워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눈감아야 할 텐데...", 매일 받기만 해서 어떡하지? 고맙구먼"

또 눈물을 글썽이며 공공 언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재가복지팀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모습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가진 것 없는 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기름 난방비, 추운 날씨 속에 조금씩 지쳐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겨울나기가 왜 이리도 힘든지.

박인수 어르신은 매월 27만 원가량의 정부생활보조금으로 생활을 한다.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단칸방.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자녀들도 병사하여 반평생을 혼자 살고 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폐지도 줍고, 행상도 하면서 생계를 이룩했지만 이제 거동마저 불편하여 하루 종일 홀로 집안에 있다.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이 만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조수급자와 저소득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을 찾아 가정방문을 하고, 이 분

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흔히 사각에 놓여있는 사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주려는 작은 바람을 가슴에 담고서 이분들을 찾아본다.

아침9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 80개를 포장하여 10시부터 관내 20개동에 거주하는 박00어르신을 비롯한 8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다양한 메모들이 책상위에 놓여있다.

진관외동 안00 어르신 천식은 가라 앉았으나 수도계량기가 터졌다고 함. 역촌동 이00 어르신 택 보일러 고장. 지00 어르신 씹기가 어려워 무료틀니 진료 예약 원함, 정00 어르신 빨래수거 요청, 도시락과 함께 전달한 연하장을 받으시고 감사함을 전하신 서00 어르신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오후업무가 시작된다. 먼저 동사무소 사회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통화, 어르신의 내방을 통한 만남 그리고 가정방문 상담 등...

늦은 오후에 최분례(79) 어르신이 밝은 얼굴로 찾아 오셨다. 얼마 전 수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아 병원연계를 통해 무료수술날짜를 잡았지만, 자부담 비용이 1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무척 상심했던 최 어르신. 후원결연을 통한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거동이 가능해졌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온 것이었다.

이 추운 겨울,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최분례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갖는 것이 너무 큰 욕심일까? 당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걸어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